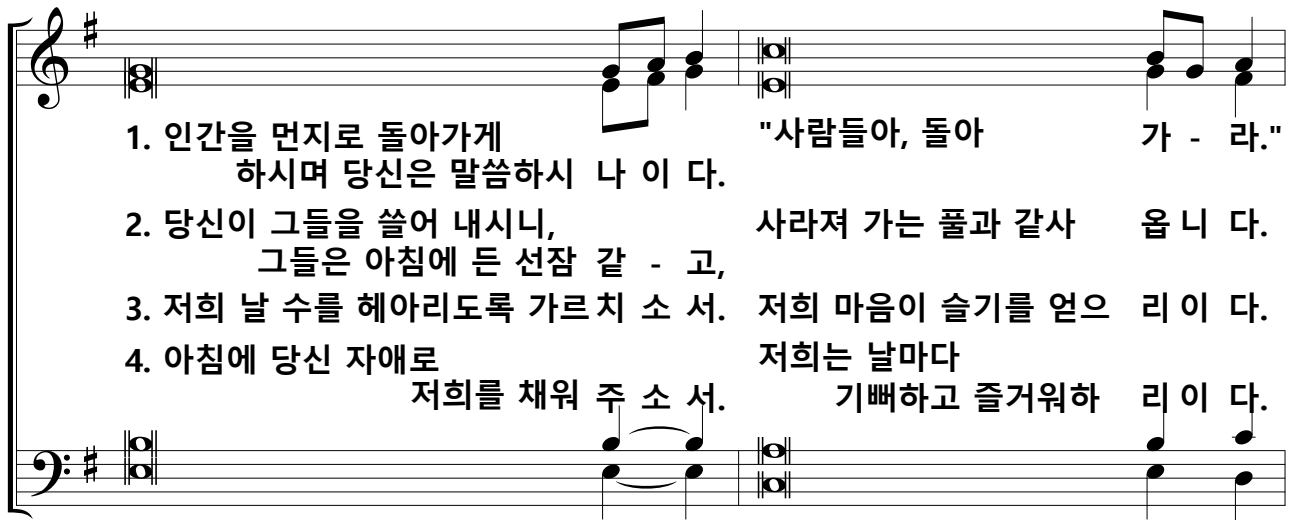


연중 제 18 주일 화답송 [다해]

시편 90(89), 3-4. 5-6. 12-13. 14와 17



(후렴) 주 님, 당 신 은 대 대 로 저 희 안 식 처 가 되 셧 나 이 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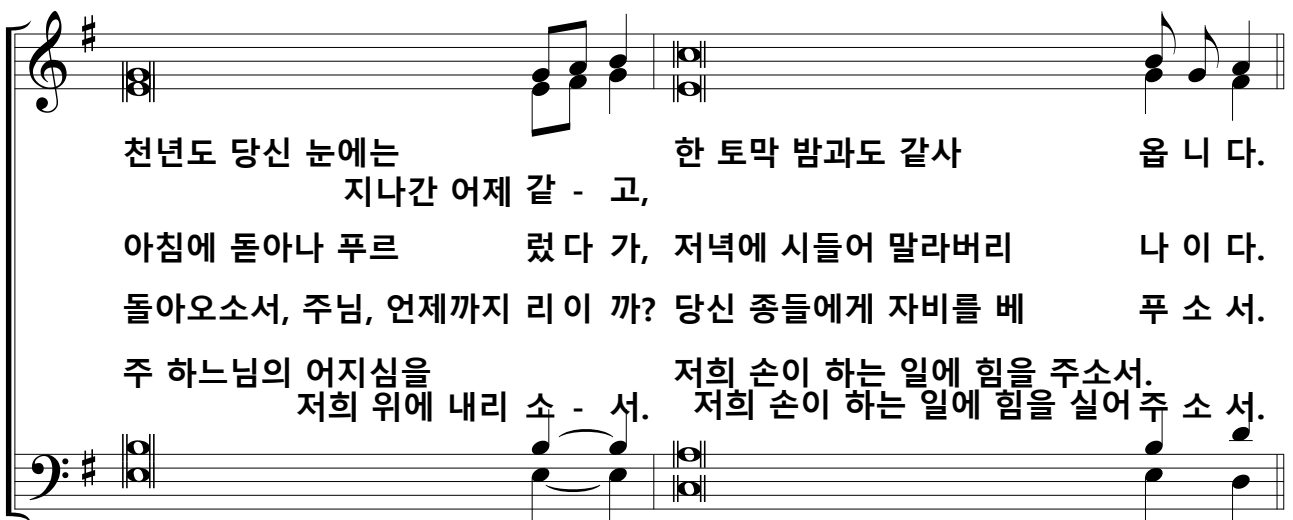


1.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 나 이 다. "사람들아, 돌아 가 - 라."

2.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, 사라져 가는 풀과 갈사 움 니 다.
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 - 고,

3. 저희 날 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 소 서.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 리 이 다.

4.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는 날마다
저희를 채워 주 소 서. 기뻐하고 즐거워하 리 이 다.



천년도 당신 눈에는 한 토막 밤과도 갈사 움 니 다.
지나간 어제 같 - 고,

아침에 돌아나 푸르 렸 다 가,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 나 이 다.

돌아오소서, 주님, 언제까지 리 이 까?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 소 서.

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.
저희 위에 내리 소 - 서.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 소 서.

연중 제 18 주일 알렐루야 [다해]

알 렐 루 - 야 알 렐 루 - 야

행복하여라, 마음이 가난한 사 람 들!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 이 다.